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

# VIP REPORT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 소재의 대 선진국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다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이장균, 이철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3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2072-623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 소재의 대 선진국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다

Executive Summary ..... i

1. 소재 산업의 현황 ..... 1

2. 소재 산업의 특징과 문제점 ..... 4

3. 시사점 ..... 9

【별첨】 소재 산업 분류 ..... 11

■ HRI 경제 지표 ..... 14

### ■ 소재 산업의 현황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국제 수직적 분업이 확산되면서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성장 잠재력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취약했던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일부 해외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부품·소재 무역수지는 2000년 93억달러에서 2009년 512억달러로 증가). 이에 전체 부품·소재 산업 개선의 이면에서 부품과 소재로 나누어 볼 때에도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 ■ 소재 산업의 특징과 문제점

소재 산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소재 산업이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제조업 전체와 부품 산업에 비해 취약하다. 2007년 기준 부품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192단위로 제조업(2.077)보다 높으나 소재 산업은 1.974에 불과하다. 또한 부품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31로 제조업 평균치(0.597)보다 높은 수준이나 소재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497로 제조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소재 산업의 높은 수입유발효과로 수출의 외화가득력이 미약하다. 2007년 산업연관표 기준 소재 산업의 외화가득액(수출 - 수출품 생산으로 유발되는 수입)은 24.5조원으로 부품 산업의 약 60조원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셋째, 국산 소재의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국내 경제 전산업의 생산에 이용되는 소재 품목에 대한 수입률(수입재/(국산재+수입재))은 2000년 33.6%에서 2007년 37.9%로 4.2%p가 증가하였다. 반면 부품 품목의 수입률은 같은 기간 30.1%에서 29.2%로 오히려 0.8%p가 감소하였다.

넷째, 소재 산업은 하이테크 제품 경쟁 비중이 높은 선진국과의 교역에서는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다. 부품 산업은 비OECD국가에 대한 무역흑자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OECD국가들에 대해서도 무역역조가 개선되고 있다. 소재 산업도 비 OECD국가들에 대해서 2009년 2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소재 산업의 OECD국가들에 대한 무역수지는 2000년 -68억 달러에서 2009년 -138억 달러로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다섯째, 소재 산업에 대한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부품 산업의 연구개발비는 약 15조원이며 R&D집약도(연구개발비/매출액×100)는 4.0848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소재 산업 전체의 연구개발비는 약 2조원으로 R&D집약도는 0.6577에 불과하였다.

###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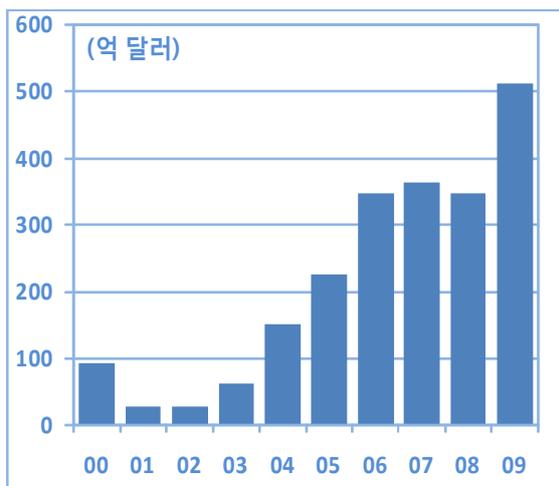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2000년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부품·소재 발전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 중시로 부품 산업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재 산업에 대해 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소재 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기초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 인력의 육성과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고위험·고수익 업종인 소재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 개발에 대한 리스크 축소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수요 기업과 소재 생산 기업 간의 공동 연구 유도를 통해 소재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 1. 소재 산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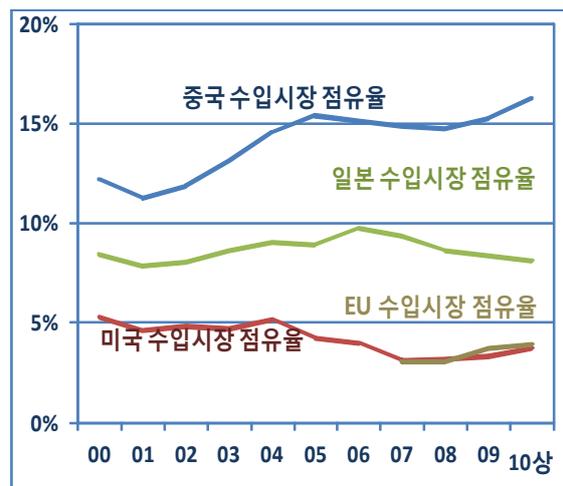
○ (문제제기) 최근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현상이 실제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상승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 보고자 함

- 그동안 한국이 취약했던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일부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2000년 93억달러에서 2009년 512억달러로 증가 5배 이상이 증가함
  - 비록 미국, 일본 등의 시장에서는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나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12.2%에서 2010년 상반기 16.2%로 4%p가 상승
- 이에 전체적인 부품·소재 산업 개선의 이면에서 부품과 소재로 나누어 볼 때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첨단 기술 산업인 소재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수지 >



< 해외시장의 한국산 부품·소재 점유율 >



자료: 부품·소재통계종합정보망 통계.

○ 소재 산업의 정의

- 부품·소재 산업은 최종재(완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원재료, 소재, 부품)로써 고부가, 고기술, 높은 산업연관효과를 가진 산업**으로 정의
  - 부품·소재 산업에 대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정의**
  - 그러나 원재료와 중간생산물이 모두 부품·소재 산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이 중에서 **고부가, 고기술, 높은 산업연관효과를 가진 산업**으로 정의<sup>1)</sup>
- 소재 산업은 원재료를 최소한 1번 이상의 가공을 통하여 만들어지며 **제품 전체가 동일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지게 되며, 부품·완제품을 구성하는 핵심기초 물질**로 정의
  - 현재 대부분 소재 산업 통계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상의 산업의 분류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음<sup>2)</sup>
  - 소재는 원재료와 부품(또는 완제품)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간재를 의미하며 원유, 곡물, 면화, 양털 등의 원자재 개념을 가지는 원재료와 구분

○ 소재 산업의 현황

- **(사업체수)** 2008년 기준 소재 산업의 사업체수는 6,794개사로 제조업 사업체수의 11.6%를 차지하고 있음
  - 부품 산업의 사업체수는 1만 5,719개사로 제조업의 26.9%를 차지하고 있음
- **(고용)** 2008년 현재 소재 산업의 종업원수는 33.9만명으로 제조업 고용의 13.8%

1)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원재료와 중간생산물 중에서 ①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②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③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 중 최소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함을 적시하고 있음.  
2) 보다 자세한 산업 분류는 【별첨】 소재 산업 분류의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상의 소재 산업 분류 > 표 참조.

를 차지하고 있음

- 부품 산업의 종업원수는 95.2만명으로 제조업 전체 고용의 38.8%를 차지하고 있음

- **(생산 및 부가가치)** 2008년 소재 산업의 생산액은 214.6조 원으로 전체 제조업 대비 1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액은 81.8조원으로 제조업 총부가가치 대비 22.3%의 비중을 가짐

- 소재 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의 제조업 비중은 각각 19.1% 및 22.3%로 사업체수 및 고용의 제조업 대비 비중보다 높아 제조업 평균보다는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높은 산업으로 판단됨

- **(교역)** 2009년 현재 소재 부문 무역수지는 90억 달러로 부품 부문 무역수지 423억 달러의 약 21% 수준

- 2009년 소재 부문의 수출액은 563억 달러이며 수입액은 473억 달러를 기록

< 부품·소재 산업 현황(개황 및 생산 2008년, 교역 2009년 기준) >

		제조업			
		부품·소재			
		부품		소재	
개황	사업체수 (개사)	58,459	22,513	15,719	6,794
	제조업 대비 비중	100.0%	38.5%	26.9%	11.6%
	종업원수 (만 명)	245.4	129.1	95.2	33.9
	제조업 대비 비중	100.0%	52.6%	38.8%	13.8%
생산	생산액 (조 원)	1,123.0	480.0	265.5	214.6
	제조업 대비 비중	100.0%	42.7%	23.6%	19.1%
	부가가치액 (조 원)	367.6	234.3	152.5	81.8
	제조업 대비 비중	100.0%	63.7%	41.5%	22.3%
교역	수출액 (억 달러)	3635	1710	1147	563
	제조업 대비 비중	100.0%	47.0%	31.5%	15.5%
	수입액 (억 달러)	3231	1197	724	473
	제조업 대비 비중	100.0%	37.1%	22.4%	14.6%
	무역수지 (억 달러)	404	512	423	90

자료: 부품·소재통계종합정보망.

주: 개황은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 2. 소재 산업의 특징과 문제점

○ (산업연관효과의 미약) 소재 산업이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제조업 전체와 부품 산업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생산유발효과** : 부품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192단위로 제조업 평균치(2.077)보다 크게 높으나 소재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74로 제조업과 전산업 평균치를 하회
- 또한 2000년과 2007년의 기간 동안 생산유발계수 변동을 보면, 부품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26에서 2.192로 0.166단위가 증가한 반면, 소재 산업은 0.040단위가 증가하는 데에 그치고 있음
- **부가가치유발효과** : 2007년 산업연관표 기준 부품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단위 당 0.631로 제조업 평균치(0.597)보다 높은 수준이나, 소재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497로 제조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2000년과 2007년 동안 소재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 감소폭은 0.064단위로 부품 산업의 감소폭(0.032단위)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 부품·소재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계수 >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2000(A)	2007(B)	B-A	2000(C)	2007(D)	D-C
제조업	2.003	2.077	0.075	0.639	0.597	△0.042
부품·소재산업	1.967	2.052	0.085	0.598	0.545	△0.053
소재 산업	1.934	1.974	0.040	0.561	0.497	△0.064
부품 산업	2.026	2.192	0.166	0.663	0.631	△0.032

자료: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산업연관표(기본부문) 400여개 산업, KSCI(8단위) 1,300여개 산업, PMSD부품·소재(5단위)산업 200여개 산업을 KSIC 코드를 기준으로 매칭시키는 작업을 선행

2) 위 유발계수는 산업별 해당 기본부문의 유발계수들의 단순 평균치임.

○ (외화가득 능력의 취약)<sup>3)</sup> 소재 산업의 외화가득액 규모는 부품 산업 외화가득액의 약 40% 수준에 불과하며 2000~2007년 외화가득액 증감률도 제조업과 부품 산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2007년 산업연관표 기준 소재 산업의 외화가득액은 24.5조원으로 제조업 전체 230.7조원의 10.6%에 해당함
  - 그러나 부품 산업의 외화가득액은 약 60조원으로 제조업 전체의 26.0%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품·소재 산업의 외화가득액은 84.4조원 제조업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2000년과 2007년의 기간 동안 부품 산업의 외화가득액은 90%가 증가한 반면 소재 산업의 외화가득액 증가율은 38%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품·소재 산업의 외화가득액은 71.3%가 증가하여 제조업의 79.6%보다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함

< 부품·소재 산업 수출의 외화가득액 변화 >

산업 분류	외화가득액(조 원)		외화가득액 증감(B-A)	
	2000(A)	2007(B)	증감액	증감률
제조업	128.5	230.7	102.2	79.6%
부품·소재산업	49.3	84.4	35.1	71.3%
소재 산업	17.8	24.5	6.7	38.0%
부품 산업	31.6	60.0	28.4	90.0%

자료: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 주: 1) 외화가득액 = 특정 산업의 수출액 - 특정 산업이 경제 전체에 유발하게 되는 수입액  
 2) 산업연관표(기본부문) 400여개 산업, KSCI(8단위) 1,300여개 산업, PMSD부품·소재(5단위)산업 200여개 산업을 KSIC 코드를 기준으로 매칭시키는 작업을 선행  
 3) 위 외화가득액은 산업별 해당 기본부문의 외화가득액의 합계임.

3) 외화가득액 (外貨稼得額, foreign exchange earning)이란 산업연관표상 부문별 수출액에서 부문별 수출의 수입유발액을 차감한 것으로 그 의미는 해당 부문의 수출이 경제 전체에 실제로 벌어들이는 외화수익을 의미함. 이와 연관된 개념으로 외화가득률 (外貨稼得率, rate of foreign exchange earning)이 있으며 이는 해당 부문의 외화가득액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소재 산업의 대 선진국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다**

○ (수입률의 상승)4) 국산 소재의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경제 전산업의 생산에 이용되는 소재 품목에 대한 수입률은 2000년 33.6%에서 2007년 37.9%로 4.2%p가 증가함
  - 이는 바꾸어 말하면 같은 기간 국내 소재 시장의 수입침투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며 나아가 국내 시장에서 국산 소재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반면, 부품 품목의 수입률이 같은 기간 30.1%에서 29.2%로 오히려 0.8%p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따라 소재 수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전체 수입률은 2000년 32.8%에서 2007년 35.2%로 2.4%p가 증가함
- 한편, 제조업 전체 수입률은 2000년과 2007년 모두 25.1%를 기록하고 있어 이 기간 동안 국산 제조업 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부품·소재 산업의 수입률 >

	2000(A)	2007(B)	차이(B-A)
제조업	25.1%	25.1%	0.0%p
부품·소재산업	32.8%	35.2%	2.4%p
소재 산업	33.6%	37.9%	4.2%p
부품 산업	30.1%	29.2%	△0.8%p

자료: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수입률 = 수입중간재 투입액 / (총중간재 투입액)

= 중간재수입액 / (국산중간재 투입액 + 수입중간재 투입액)

2) 산업연관표(기본부문) 400여개 산업, KSCI(8단위) 1,300여개 산업, PMSD부품·소재(5단위)산업 200여개 산업을 KSIC 코드를 기준으로 매칭시키는 작업을 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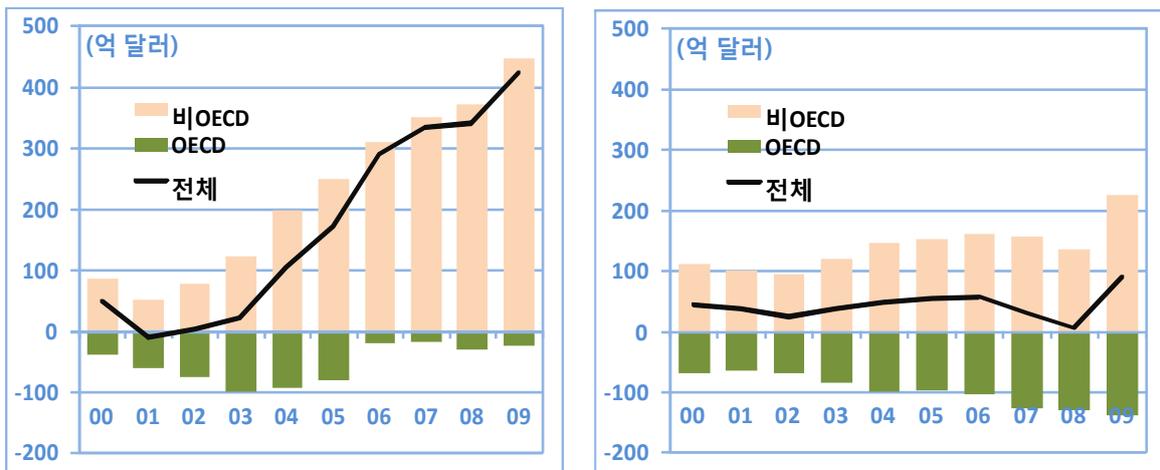
3) 위 수입률은 산업별 해당 기본부문의 수입률들의 단순 평균치임.

4) 수입률은 부문별 산업연관표 비경쟁수입형표(총거래표)상 내생 부문 중간재 투입액 대비 경쟁 수입형표 중 수입거래표상 내생 부문 중간재 투입액의 비중임. 따라서, 수입률은 해당 산업의 효과가 아니라 경제 전체에서의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률 또는 역으로 국산화율을 의미함.

○ (대 선진국 무역역조 심화) 소재 산업은 후진국과의 교역에서는 이익을 보고 있으나 하이테크 제품 경쟁 비중이 높은 선진국과의 교역에서는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음

-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의 전세계에 대한 무역수지는 2000년 93억 달러에서 2009년 512억 달러로 개선되고 있음
  - 소재 부문 무역수지는 2000년 44억 달러에서 2009년 90억 달러로 약 두 배 증가하는 데에 그쳤으나, 부품 부문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 49억 달러에서 423억 달러로 약 9배가 증가함
- 부품 산업의 비OECD국가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폭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OECD국가들에 대한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소재 산업의 비OECD 국가에 대한 무역수지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OECD 국가들에 대한 무역수지는 적자폭이 커지는 모습을 나타냄
  - 2009년 소재 산업 교역은 비OECD 국가들에 대해서 227억 달러 흑자, OECD 국가들에 대해서는 13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부품·소재 산업의 경제권별 무역수지 >  
(부 품) (소 재)



자료: 부품·소재통계종합정보망 통계를 이용하여 계산.

**소재 산업의 대 선진국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다**

○ (R&D투자의 미흡) 소재 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그 성과도 부품 산업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개발투자 : 부품 산업에 비해 소재 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기준 소재 산업 전체의 연구개발비는 2조 644억 원인 반면 부품 산업 연구개발비는 15조 719억 원에 달하고 있음
  - 또한, 매출액을 고려한 연구개발비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인 R&D 집약도 (연구개발비 / 매출액 × 100)는 2006년 기준 소재 산업이 0.6577로 부품 산업의 4.0848보다 크게 낮은 수준
  - 특히, 부품 산업의 R&D 집약도는 2001년 3.9488에서 2006년 4.0848로 높아진 반면 소재 산업은 1.0365에서 0.6577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 연구개발투자의 성과 : 소재 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부품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그 결과 소재 산업의 특허 건수도 미약한 수준을 기록함
  - 소재 산업의 특허 건수는 2006년 기준 2만 2,699건으로 부품 산업의 13만 8,161건의 16.4%에 불과함
  - 특히 부품 산업의 특허 건수는 2001~2006년 기간 동안 1.6배가 증가하였으나 소재 산업은 같은 기간 1.3배가 증가하는 데에 그침

**< 부품·소재 산업의 R&D 집약도 및 특허 건수 >**

항 목	산 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R&D집약도	부품·소재	2.6383	2.6316	2.7586	2.7608	2.6910	2.5096
	부 품	3.9488	3.7919	4.0385	4.0605	3.9274	4.0848
	소 재	1.0365	0.9826	0.8809	0.9163	0.8721	0.6577
특허건수	부품·소재	104,082	105,053	117,170	138,049	155,785	160,860
	부 품	86,716	87,807	99,707	119,644	134,424	138,161
	소 재	17,366	17,246	17,463	18,405	21,361	22,699

자료: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2008),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분석』 <위탁수행기관-한국산업전략정보연구원>에서 인용.

주: 1) 연구개발비 = 개발비 + 경상개발비(순익계산서) + 개발비상각 + 경상개발비(제조원가명세서)  
 2) R&D 집약도 = 연구개발비 / 매출액 × 100.

### 3. 시사점

**첫째,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소재 산업에 대한 지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대부분 제조업종들이 개도국과의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는 상황에서, 기술격차로 인한 진입장벽이 높은 소재 산업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2000년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부품·소재 발전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다보니 부품 산업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어,
  - 첨단 기술들이 체화된 산업인 소재 분야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향후 한국이 기술중속국으로 몰락할 우려를 낳게 하고 있음

**둘째, 소재 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기초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 인력의 육성과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관련 연구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소재 관련 학과에 대한 연구 자금 지원, 학생에 대한 학자금 보조, 졸업 후 전공 관련 연구직으로의 취직 지원 등의 노력이 요구됨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연구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보조, 출입국 행정 편의 제공 등과 같은 해외 고급 연구 인력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임
- 또한 소재 산업의 빠른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제휴를 장려하고 R&D 센터의 국내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셋째, 고위험-고수익 업종인 소재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 개발에 대한 리스크 축소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 소재 산업이 기초연구, 원천기술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소재 부문에서의 시장진입과 점유율 확대는 대규모 리스크가 수반됨
-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신뢰성 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 기업의 범위를 첨단 소재 기업으로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신뢰성 보험 : 수출보험공사에서 국산 부품·소재 구매기업에게 제품 신뢰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소재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는 제도

**넷째, 수요 기업과 소재 생산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시켜 소재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 경쟁력이 취약한 소재 부문에 대해서는 그 육성 전략의 초기 단계에서는 주요 타겟 시장을 해외로 겨냥하기보다는 국내 수요 확충을 통해 산업 성장 기반을 다져나가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소재 수요 기업에 대해서 국산 소재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유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나,
  - 금융·세제 상의 직접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통상 마찰의 소지가 되기보다는 소재기업과 수요기업간의 공동 연구 및 제품개발 등의 형태로 자연스러운 결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HRI**

주 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02-2072-6235)

**【별첨】 소재 산업 분류**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상의 소재 산업 분류 >

분 야 (KSIC No.)	적용 범위	KSIC 세분류 번호
섬유제품제조업 (17)	섬유방적사 (천연원료를 제외하고, 기타방적사는 무기질섬유사 및 텍스처사 등 가공사에 한한다.)	1710
	섬유직물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섬유직물에 한한다.)	1720
	염색·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 (호부, 기타섬유염색 및 정리가공품을 제외한다.)	1740
	부직포 및 펄트	17993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17994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	17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공업용 기타종이 및 판지	21129
화합물및화학제품 제조업(24)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유도체에 한한다.)	24111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2411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24129
	무기안료,염료,유연제및기타착색제	2413
	합성고무	24151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물질	24152
	기초의약품질 및 생물학적제제	2421
	농약원제 및 중간체	24312
	공업용도료 및 관련제품	24321
	공업용인쇄잉크	24323
	계면활성제	24331
	공업용 사진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24342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제품	24392
	접착제 및 젤라틴	24393
	공업용 기타분류안된 화학제품	24399
화학섬유	2440	

소재 산업의 대 선진국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5)	타이어 및 튜브	25111
	공업용 비경화고무제품	25191
	공업용 기타고무제품	25199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25211
	엔지니어링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관	25212
	극세사합성피혁	25213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제품	25240
비금속광물제품제 조업(26)	공업용 박판유리 (두께 1.5mm이하에 한한다.)	26111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유리	26121
	판유리 가공품	26122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26129
	공업용 도자기 (파인세라믹을 포함한다.)	26213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전주내화물에 한한다.)	26221
	기능성석회 (형상 및 물성제어된 제품에 한한다.)	26312
	연마휠	26991
	초미립 비금속광물 (평균 입경 1.0 $\mu$ m 이하에 한한다.)	26992
	공업용 내화단열재	26993
	탄소섬유	26994
복합소재 비금속광물	26999	
제1차금속산업(27)	합금철	27112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을 제외한다.)	27121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 (보통강 냉연강판을 제외한다.)	27122
	철강선 (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을 제외한다.)	27123
	주조한 관연결류	27131
	강관 (전기용접 보통강관을 제외한다.)	27132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재 (아연도금강판을 제외한다.)	27191
	그 외 기타 철강제품	27199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품	2721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2722
	철강주조제품 (희주철을 제외한다.)	2731
	비철금속 주조제품	2732

## HRI 經濟 指標

---

###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8 <sup>P</sup>	2009 <sup>P</sup>					2010 <sup>E</sup>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4.3	-2.2	1.0	6.0	0.2	8.1	7.2	5.3	
	민간소비 (%)	1.3	-4.4	-1.0	0.7	5.8	0.2	6.3	3.7	4.1	
	건설투자 (%)	-2.8	2.8	5.1	4.4	5.0	4.4	2.3	-2.7	2.2	
	설비투자 (%)	-1.0	-23.1	-17.3	-7.0	13.3	-9.1	29.9	29.0	13.0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58	86	131	104	106	427	13	103	130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133	30	170	102	124	426	34	156	230
		수출 (억 \$)	4,220	744	904	948	1,040	3,635	1,013	1,211	4,390
		증감률 (%)	(13.6)	(-25.2)	(-21.1)	(-17.6)	(11.7)	(-13.9)	(36.2)	(34.0)	(20.8)
		수입 (억 \$)	4,353	714	740	848	929	3,231	980	1,055	4,160
		증감률 (%)	(22.0)	(-32.7)	(-35.6)	(-31.0)	(1.4)	(-25.8)	(37.2)	(42.7)	(28.8)
소비자물가 상승률 (%)	4.7	3.9	2.8	2.0	2.4	2.8	2.7	2.6	3.1		
실업률 (%)	3.2	3.8	3.8	3.6	3.3	3.6	4.7	3.5	3.6		
국제유가 (평균, Dubai, \$/배럴)	94	44	59	68	75	62	76	79	8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3	1,418	1,286	1,239	1,168	1,276	1,143	1,166	1,110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